

우리협회 안전진단기술 국내최초 해외 진출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영신 기술이사를 비롯하여 안전진단팀에서는 4.12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국 복건성 하문에 소재한 “(주)진웅” 현지 공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전분야 해외로 진출한 경우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외국 현지공장에 대해서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해외 현지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의 안전기술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보급·전파할 계획이다.



21C를 대비한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의식이 약화되고, 행정조직 및



감독인력이 감축되는 등 산재예방사업 추진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21세기에는 근로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새로운 여건에 적합한 21세기형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전망아래 신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2일에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신선진화계획 기획단의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노동부는 신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23일에 전경련회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임현진 교수), 21세기 대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 방안(김찬오 교수), 새로운 산업안전선진화의 요체(윤인섭 교수), 건설재

해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이영섭 교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양길승 원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여 열띤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산업재해 환자도 한방치료 받는다

노동부는 4월 15일부터 산재보험에서 추락, 절단 등 외상성 질환만 발생하는 산재질환의 특성상 양방진료만 인정했으나, 환자 및 노동단체 등에서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함에 따라 산재보험에서도 한방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방진료대상 질병은 양방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휴우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요통·염좌, 근골격계질환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등이다. 한방진료의 인정범위는 한방의료보험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고 진찰·검사등을 포함, 침·뜸·부항 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처방이 인정된다. 현재 침약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료 규격화가 진행되면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는 전국 산재보험지정 한방의료기관의 소견서가 기재된 요양신청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전 삼천포화력본부 무재해 5배 달성



한전 삼천포화력 본부는 4월 15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한전 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5배 달성 인증서 수여식을 갖았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지난 9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팀을 필두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상설운동을 비롯, 협력업체 안전관리협의회를 통한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확보,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무재해 5배 달성이라는 위업을 이룩하였다.

의 용어와 그래픽 심볼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SC4(감사방법)분과에서는 검사시의 측정 정밀도 요구 조건과 휠 정렬도 측정방법을 토의하였다.

또한 SC5(사용 및 정비)분과에서는 크레인의 사용시 안전에 대한 토의와 SC6(이동식 크레인)분과에서는 운전자 교육 및 운전교본의 작성과 크레인 안전에 관한 유럽규격과 비교검토가 이루어 졌다. SC7(타워크레인)분과에서는 신규제한 항목으로 상태감시에 대한 토의가, SC8(지브크레인)분과에서는 크레인의 접근통로 및 방책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현장 등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크레인분야 기술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제조, 수출·입, 유통되고 있는 크레인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ISO/TC96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크레인 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수출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인 국제표준화 규격제정기술위원회의 개최

국립기술품질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지난 4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제주 소재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크레인분야 국제규격회의(ISO/TC9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Technical Committee 96)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크레인분야 국제규격회의(ISO/TC96)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기술력이 우수한 선진 13개국에서 각국의 국가표준을 담당하는 대표와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레인의 용어, 크레인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 8개 분과 위원회(SC2-SC9)별로 상정된 62건의 국제규격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특히, 이번 제주 국제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의한 과제는 SC2(용어)분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크레인